

마음이 건강한 여성들이 만드는 착한 사회

(사)한국알트루사(altrusa)는 에타주의(altruism) 정신의 토대 위에 여성들이 자기개발과 자원봉사의 뜻을 합하여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함께 살기 훈련

영우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이 마냥 심각해진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집니다. 자기 어깨보다 넓은 책가방을 지고 가는 뒷모습이 눈에 선히 그려집니다. 전에는 그저 놀기만 해도 충분했지만 이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엄격함에 성실하게 맞추어 갑니다. 영우는 형이나 누나보다 더 빨리 학교로 나선답니다. 학령기는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려는 마음과 학교라는 바깥 제도가 정한 바를 해내는 노력을 요구받는, 반대되는 두 방향의 힘의 가운데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바깥에서 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전통 교육 방식은 주어진 것을 일방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은 ‘아이 중심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썸머 힐 학교는 대표로 후자에 속한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네 학교는 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 결과 우리네 아이들은 배움의 참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내면의 참 동기에서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고 좋은 교사는 ‘지금’ 아이가 가진 ‘관심과 능력의 상태’를 알고 그것에 맞춰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지로 하게 하는 대신, 해야 하는 것을 무리 되지 않게 안내합니다. “네 멋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느슨한 태도가 아니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확실한 자세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놀이 시기에는 상상의 세계에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과 논리의 세계에서 자라며 어른 되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전부터 말로만 되뇌어 왔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교육 때문에 아직도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의 주체인 아이를 무시하는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며, 배우고, 바뀌고, 자라서,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만 교육의 효과를 보는데,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한 보기가 우리의 심리학 교실입니다. 이미 있는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고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이름을 외워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것도 배워갑니다. 서로 거울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익힙니다. 교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모두 진정한 교재입니다. ‘마음’이라는 말, ‘느낌’이라는 말을 이미 사전풀이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보살피며 살자”는 말이 어떤 뜻인지 교재로만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교훈 같은 당부는 말로 익히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같이 느끼는(공감하는) 바탕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는데, 교육이 이를 앗아가고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만을 바라고 추구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이 주범입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이 우선되는 척도가 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당들도 모두 똑같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웁니다. 국민들이 모두 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 역시 모두 경제와 그 힘을 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의 산물이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람다움의 소중함을 내동댕이친 겁니다. 학교에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학교를 바로 세우는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자리에 내칠 수 없으니까요. 영우와 세훈이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2016. 4. 19. 알트루사 집단상담 발제 글 / 문은희(알트루사 여성상담소장)

=== 제248호 ===

- [정신건강 상담공부]
- …… 손을 내밀면 손이 보인다
- [여성의 눈으로 성서읽기]
- …… 하나님 은혜의 측정
- [어머니 연구]
- …… 더없이 소중한 나의 한 걸음
- [핵없는세상]
- ……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에게
- [기후응급시대]
- …… 밀가루 없는 식탁이 상상되는가?
- [재미있는학교]
- …… 입학과 졸업을 축하합니다!!
- [난민과 함께 살기]
- …… 내 친구 아미아타
- [자원활동가 일기]
- …… 카드는 사랑을 싣고
- [모람소개]
- ……김희정이 김희정을 소개합니다
- [모람들이 궁금하다]
- [자원활동 소식]
- [회비, 살림현황]
- [임시총회 및 제 39회 창립기념행사 안내]
- [후원방법 및 2022년 5월 일정표]
- [알트루사 사업, 오시는 길]

◆ 정신건강 상담공부

통찰력 있는 눈, 유연한 사고로 나의 삶과 주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있는 시간. 문은희 상담소장님이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30~12:30)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라니, 우선 '나도 한번 상담 받고 싶다'라는 솔깃함이 든다. 실제 그의 따뜻하고 환한 미소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카리스마를 접하고 나면 발길을 끊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떠나지 않아 여성의 마음을 일깨우는 일이라면 어디든 간다.

◆ 4월 6일

손을 내밀면 손이 보인다

강용민

수요 모임이 있는 날, 출근 하는 날과는 다른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좋다. 여유 있게 차 한 잔 하며 아침을 즐기고 싶지만 밀린 집안일을 하고 모임 10분 전에 줌에 접속했다. 문은희 선생님께서 들어와 계셨다. 어찌 지냈는지 물어 봐주시는 관심에 내 이야기가 쑥쑥 터져 나왔다. 잠시 뒤에 모람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사춘기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다.

<길고 어려워진 사춘기라는 터널 지나기>라는 선생님의 발제 글을 내가 소리 내어 읽었다. 입으로 읽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읽지 않고 있었다. 모임의 첫 시작은 늘 낯설다. 그냥 듣기만 하고 싶어서였을까? 모람들이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항상 내가 보인다. 꺾꺾 눌러 밀쳐두었던 내 마음이 보인다. 내 기준에 차지 않는 아이를 보는 나, 지난 세월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는 나,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에게 내뱉는 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하는데, 나 혼자 어찌지...' 싶어 고민하던 차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때문인지 아님 마치 내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던 한 모람 때문인지 모르겠다. 뽕뽕 얼어있던 내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이야기할 마음을 먹었다.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그 모람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가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들과 다르듯 내 아이도 다른 아이랑 다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인 동시에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 속이 후련했다. 들어주시는 문 선생님과 모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나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 여성의 눈으로 건강하게 성서읽기

평소 교회나 성당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특히 여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성서를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모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30~12:30)

❖ 3월 23일

하나님 은혜의 측정

김은정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읽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최근 오십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누가복음 13:12)”는 구절을 읽고, 예전에 망막박리를 진단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신호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지를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되었다.

○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탕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넘쳐 나는 쓰레기, 일회용 기저귀 사용 등 살아가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계속 죄만 쌓여가는 것 같다. ○ 인간에게만 구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창세기 9:10)”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요나서 4:12)”

○ 누군가가 변을 당하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신과 닮은 이웃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보고 자신에게 마구 화를 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아이가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고 타일렀지만 속으로는 아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

○ 이 세상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없애 주셨는데, 아직도 그 죄에 매여 벌 받은 게 아닌가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이다.

○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오랜 시간을 죄책감 속에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설교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선 너 자신도 사랑하라”는 뜻일 수 있다.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한다는 뜻은 나를 최대한 억누르고 죽이는 것과는 구별될 것이다.

❖ 정신건강 연구소

여성이라면 누구나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어머니, 언니, 아주머니, 할머니... 다양각색 니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한다.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늙은이 모두 같이 한다. 이미 만들어진 틀이 아니라 공평하게 새로운 틀을 만든다. 우선 각자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를 새로이 발견하며 동시에 자신도 알아가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마다 그동안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있다.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0:30~오후 1:00)

❖ 4월 1일

더없이 소중한 나의 한 걸음

최미리

오랜만에 어머니 연구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다. 화상모임에서 문 선생님과 여러 모람들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 마치 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작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한 정신건강 연구소 모임에 참여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 연구를 피했다. 하지만 내 일상은 돌아가신 어머니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다. 내 어머니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한 나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날 모임에서 각자 지금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 자신의 모습에 견주어 지금까지 경험한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해 그동안의 작업을 정리하자는 선생님의 제안이 있었다. 이전부터 해온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새로 시작한 사람은 그 나름으로, 어머니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자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서로 고민했다. 문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해 줬다.

무엇보다 친정어머니를 이해하면 시어머니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였다. 때마침 시어머니를 피하는 이유가 내 어머니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불안, 걱정, 과한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 식대로 해석하며 자라왔다. 그 경험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을 하며 어머니처럼 지내왔다. 나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견디기 어려워 오랜 시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로 좋은 것들만 보려고 했다. 과거 알트루사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피해 왔으니 참여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내가 어머니 연구를 피했던 이유를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오랜 시간 걸려 내딛는 한걸음이 더없이 소중한 것 같다.

❖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소에 반대하고자 2012년 8월 15일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저항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시민이다.' '공공의 자리에서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는 시민이다'라는 정신으로 세계의 피폭자를 돕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다 함께 연대하고 있다.

[facebook.com/wwnukep](https://www.facebook.com/wwnukep)

cafe.daum.net/wwnp

blog.naver.com/wwnp2011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00~)

(읽기모임 :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30~12:30)

❖ 3월 28일

불안과 걱정하는 마음에게

홍혜경

모임 전 같이 나누는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잘 지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의 인터뷰 기사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2019년도에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공생들이 갈 곳을 잃고 원자력을 포기하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비판적 입장을 연일 알리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게 될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증가를 공식화했다.

핵의 위험이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 핵없세 참가자들은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다. 왜 안전에는 무감각할까? 그래서 현재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한 모람은 감수성교육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모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를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알트루사의 정신건강사회운동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핵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에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핵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싸고 간편하다 생각하는 에너지원의 어두운 뒷면이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올 6월엔 지방선거가 있다. 장수에 사는 모람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내 군수와 도의원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답변을 정리해 유권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핵없세 모임에서도 준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결론을 예측하고 그 결론을 보면서 가지 말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가자”는 말처럼 우리는 시민으로서 매순간 평화와 안전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함께 확인했다.

❖ 기후응급시대

필자인 김희정 님은 현재 환경교육강사로 활동하며 텃밭농사를 짓고 있다. 아이가 자연환경에 가깝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산 후 전북 장수로 이사했다. 제236호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밀가루 없는 식탁이 상상되는가?

김희정

나는 피자, 빵, 파스타, 각종 전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 한약 먹을 때마다 밀가루 음식을 피하기가 참 힘들었다. 고작 한 달가량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평소에도 밀가루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대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주변국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웃 나라의 산불, 가뭄, 폭염, 전쟁은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다. 이들에게 의지해서 먹을거리를 공급받는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더 큰 아픔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반정부시위의 배경에는 2007~2008년의 세계 식량가격 폭등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20년 <식품외식경제>는 당시 6개월 이상 지속된 호주 산불로 밀의 생산량이 감소해 국내 식품업체들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2021년도는 어떠한가? 미국이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주요 밀 수입국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다.

2020년 4월 <한국농어민신문>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1.2%다. 이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의 수와 농경지 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숙련된 농민은 초고령층에 진입했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했던 일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을 대신해주는 기계의 연료비가 지속해서 올라가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 가야 한다

는 목소리가 먹을거리 자급률을 높이는 실천으로 표현되길 간절히 바란다.

❖ 재미있는학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재미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통도 극복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를 통해 배움의 의미를 회복하여 평생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는학교'의 목표이다.

❖ 3월 19일

입학과 졸업을 축하합니다!!

- * 사 회: 한문순(청소년/청년재학문지기)
- * 졸업생: 김민석(대학1)
- * 입학생: 김인애(초4) 김인하(초2) 손세진(초1)

한지연(교장): 올해 졸업식과 입학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에 시작한 재미있는학교(이후 재학)는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졸업생은 김민석군입니다. 입학생은 초등재학에 입학하는 인애, 인하, 세진입니다.

김민석(졸업생): 안녕하세요. 아는 얼굴도 보이고 모르는 얼굴도 조금 보이는데 많이 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반가워요. 대학교에서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신기해요.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하(초2,입학생): 아주 착한 김인하요.

김은정(인애인하인준맘):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문제집도(많고)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재학 입학) 또 뭘 배우는 거야? 이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정은선(세훈세진여진맘): (세진이가 부끄러워서 엄마가 대신) 향동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 간 지 몇 주 됐는데, 밥도 잘 먹고 오고, 다행히 안 간다는 소리 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집 근처 개천에서 물수제비 뜨기 연습을 해요.

천하림(중2): 오늘 입학하고 졸업하는 분들 축

하해요. 입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에 다니게 될 텐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졸업하시는 분에게 축하하고요. 그동안 다 배우고 나가신 거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길 바라요.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에 즐겁지 않았던 마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던 그런 곳이 재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박희영(하림맘) : 하림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충북 괴산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재학을 계속 다닐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줌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하림이도 “재학 다시 갈 거야?” 물었더니 “어! 가야지~” 바로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너무 기뻐했어요.

이동화(초4) : (입학생 친구들에게 하는 말) 재학에 갔을 때 어떤 오빠가 재학이 감옥같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렇게 느꼈는데 엄청 재밌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민석이 오빠가) 왔으면 좋겠어요.

유선희(동화동연동주맘) : 입학 진짜 축하해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민석이 아주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왔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샤이니(초2) : 동생이랑 잘 지내고, 오빠랑도 사이 좋게 지내고, 되게 즐겁고, 좋고, 졸업하는 오빠 축하하고, 입학하는 1학년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쑥쑥 잘 하렴!

웬디(초5) : 이제 5학년이에요. 입학한 애들은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 민석이 형 공부 잘 해~

이은우(고1) : 입학하는 동생들 너무 축하해요, 지금 이 학교에서 재미있게 지내길 바라요. 그리고 졸업한 민석이 형 너무 축하해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아요

홍혜경(현우은지은우맘) :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도 알트루사 여러 모임에서 자기 표현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학 어린이들도 재학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아요.

현승주(초2) : 원래 평소 같으면 (축구교실) 재

있는데 오늘은 약간 재미없었어요. 쪼겨든요. 화요일에는 수업이 끝나고 그 남은 시간이 오기를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윤들(승주주은맘) : 아이 둘 데리고 재학에 돌아오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말로만 듣다가 실제 민석군 보니까 신기하고 축하해요. 작년부터 (재학)해서, 아직 신입생 같은 기분이예요.

임은유(초4) : 재학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가하면 재밌어요. 활동하는 게 재밌어요. 졸업 축하하고요, 입학해 잘 생활하기를 바라요.

윤재오(고유은유맘) : 재학 졸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랄까, 재학의 어떤 든든한 뿌리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입학하는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 다 앞으로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김찬위(중3) :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자랑할 친구가 별로 없어 혼자 끙끙 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재학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고, 그림 일하는 분들을 잔뜩 소개 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재학에서 짧은 시간동안 알찬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김용은(찬위맘) : 졸업하는 김민석 군 그리고 입학하는 어린 친구들도 모두 축하하고 반가워요. 찬위는 작년에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매주 재학을 기다리고 방학 때는 슬퍼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모임을 지켜주고 있는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제선(현주원석맘) : 재학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들 여기 다 있고 알트루사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재학 초등부에도 있고, 감격하고 있어요. 진짜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청년 민석이의 삶도 응원해요.

김한울(고1) : 입학하는 친구 중에 재학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참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재학에 들어오면 서로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졸업하는 민석이 형은 앞으로 대학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지혜(한을맘) : 졸업을 축하하고 이제 어른의 길을 차근차근 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고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축하해요. 지

금 초등 재학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입학 축하해요.

김지은(혁빈맘) : 민석 군이 알트루사에서 엄마 무릎에 눕고 앉아 있던 아이였어요. 이제 성인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데 해보고 싶은 것 하나 갔으면 좋겠어요. 입학생들은 친구나 언니, 형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미형(어린이재학선생님) : 졸업하는 친구는 어렸을 때 몇 번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한 거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리고 재학에서 같이 성장한 친구들을 보면 깊이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에서 아이도 어른도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뻐요.

❖ 난민과 함께 살기

난민은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박해나 차별을 받아 생명조차 보호받을 수 없어, 살아남기 위해 제3국에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건강한 여성들이 난민과 함께 사는 착한 사회를 위해 행동한다. 마음 붙일 데 없는 난민에게 관심 두고 서로 협력하려 한다.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30-12:30)

❖ 3월 14일

내 친구 아미아타

이미경

나와는 거리가 먼 말이었던 ‘난민’. 난민들에게 거의 무관심했던 나는 난민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난민에게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습관적인 자기합리화가 지금은 너무 부끄럽다.

알트루사 새내기 회원으로 이것저것 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바쁜 와중에도 ‘난민과 함께 살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어줄 수 있을까 문 두드려본 게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난민과 함

께 살기’ 활동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편협했던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이지만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려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난민 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많은 난민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기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다. 어차피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확실하게 도울 방법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난민을 향한 모람들의 간절한 마음도 너무 귀하다.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같다.

회의를 하면서 오가는 따뜻한 마음이 그들한테 전해지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열심히 잘 꾸려가는 난민 친구들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되어준다. 특히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 아미아타이다. 그레이셔스의 엄마로 잘 알려져 있다. 아미아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쾌활하게 세 자녀의 엄마로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 13살 나이에 고향 라이베리아를 떠나 30년 넘게 난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이웃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 등은 내가 다 헤아리기 어렵다. 긴 난민 생활을 거치며 하느님을 만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 아미아타는 내게 오늘도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좋은 친구이다. 하느님께 기도한다. 아직 난민 인정을 못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미아타에게 꼭 좋은 소식이 생겨 한국에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 자원활동가 일기

알트루사의 모든 활동은 자원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함께 모여 웃고, 울고, 갈등하고, 화해하느라 알트루사 사무실은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면서 경험한 감동과 성장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카드를 사랑을 신고

정미형

* 봉사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카드쓰기운동과정을 대본으로 꾸며보았다.

인물1: 00님도 몸이 아프시다는데….

인물2: 코로나로 요즘 만나지 못하니 더 걱정이네요!

인물3: 그럼 우리 카드를 쓰면 어떨까요? 큰언니운동의 일환으로요.

인물1: 그거 좋네요

인물2: 아프신 분들이나 코로나로 힘들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카드를 쓰면 좋겠어요.

인물1: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데 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인물2: 알트루사 카페가 있잖아요?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면 어때요?

인물3: 좋아요.

인물1: 00의 소개글(소식글)은 제가 써볼게요.

인물2: 00는 다른 분께 소개글을 써달라고 하면 좋겠죠? 그 부탁은 제가 해볼게요.

가짜에 소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인물1: 이제 댓글이 꽤 모였네요!

인물2: 이번에는 제가 보낼게요.

인물3: 다음번에는 제가 보낼게요.

댓글 출력해 카드에 붙이고 우체국으로 발송~!

인물4: 다음번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인물1: 그럼 그 카드를 알트루사와 봉사하는 분에게 보내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인물2: 이렇게 모두 함께 하니 좋네요!



카드에 댓글을 가득 담아 우체국 가기 전에 찰칵!

모람소개

김희정이 김희정을 소개합니다

김희정

스무 가구가 채 안 되는 마을에서 나와 성과 이름이 같은 이웃을 만나 참 신기했다. 약 10년 전쯤인 듯싶다. 마을 언니들과 바느질모임을 하다가 내가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서 보인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보다 몇 해 먼저 세상살이를 시작한 희정 언니는 그때 나에게 “어린 희정이가 아주 힘들었구나? 어린 희정이를 잘 위로해줘~.”라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줬다. 또 가끔 길에서 만나면 “타고 갈래?”라며 내 의사를 먼저 묻는다. 그 외에도 언니는 무슨 일을 함께 할 때면 매 순간 내 의사를 먼저 묻는다. 난 그런 언니의 태도를 보며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그 때문일까? 언니와는 가끔 만나지만,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서로의 깊은 생각까지 나눈다.

그 과정에서 알트루사 집단상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언니에게 참여를 권하게 되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고 했다. 언니는 궁금해 하며 참여했고, 작년부터 계속 수요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후 알트루사 월회원이 되었다. 언니는 수요모임에 참여자들이 준비된 경청자 같다고 했다. 자신의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으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참 좋다고 한다. 이후 우리는 어머니연구모임도 함께 하고 있다. 덕분에 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글로 접하며 언니를 조금 더 알게 되어 좋다. 앞으로도 마을주민, 알트루사 모람으로 언니와 함께 정신건강사회운동을 이어가고 싶다.

모람들이 궁금하다

- 김지은 님, 홍혜경 님이 1년 간의 간사업무를 마치고(3/31) 이사와 부회장으로 복귀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한다.
- 박희영 님이 <책방 문화있다>에서 지역예술가 콜라보 프로젝트인 <괴산별곡>을 마련하였다 (4/23~10/15) 낭독극, 북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괴산별곡>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70-7724-4005, 책방 문화있다)

❖ 자원활동 소식

알트루사의 주인은 바로 모람(회원)들이다. 모람이 들러서 서는 실무 간사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영역에 명예롭게 참여하는, 모람들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는 자원봉사 단체이기 때문이다.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를 찾아가며 건강한 마음으로 착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자원활동가회의는 5월 3일(화) 오후 1:30-3:30에 화상회의로 열린다.

■ 사무 봉사

- 상담봉사 : 문은희
- 뜨개봉사 : 문은희
- 모임 공지 : 김윤정 윤들 한문순
- 수업 녹음파일 전송 : 김윤정
- 봄맞이 대청소 : 김현경 이주영 정선주
- 도서구입 : 한문순
- 조끼발송 : 한문순
- 화요모임 통역 : 임세은
- 비영리단체 주소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한문순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진행 : 한문순
- 법인세 신고 : 김지은 한문순
- 교보문고 발주건 전달 : 조윤미
- 재학 입학생 선물 준비 : 고향심, 한문순
- 재학 도서 선물 발송 : 한문순
- 계간지 판매와 발송 확인 : 이주영

■ 소식지 봉사

- 원고 청탁 : 김현경 한제선
- 원고 수합 : 김현경
- 원고 초교 : 윤들

- 편집 : 김용은
- 교정 : 박영희 조윤미 최현숙 한문순 한제선
- 발송 봉투 작업 : 고은하 김용은 정은선
- 우체국 발송 : 김용은
- 라벨 작업 : 김현경 이인미

■ 계간지 봉사

- 발송 봉사 : 김현경 이인미 이주영 정선주 조은숙
- 차량봉사 : 이주영

회비현황

(2022년 2월 1일 - 28일)

■ 월회비 43명

강용민(3월) 김광운(3월) 김금희(3월) 김민지(21년12월-22년1월) 김미영(2월) 김연옥(21년11월) 김영남(2월) 김용은(21년12월-22년4월) 김은정(2월) 김인하(3월) 김지영(일하는학교)(3월) 김지은(3월) 김지혜(3월) 김태영(3월) 김희정(3월) 남유정(4월) 문명희(4월) 문성근(2월) 박상희(3월) 박선옥(3월) 박수산나(4월) 박영신(3월) 박희영(3월) 서유미(3월) 양나래(2월) 여정숙(3월) 이경희(3월) 이미경(3월) 이승희(3월) 이정현(2월) 이한나(3월) 이현숙(3월) 이형춘(3월) 임금희(3월) 주귀련(3월) 정보영(3월) 지순경(3월) 최동안(2월) 펠(이주영)(3월) 하지영(3월) 한수정(1월) 한은영(3월) 홍혜경(21년10월-22년3월)

■ 이사회비 18명

고은하(21년11월-22년3월) 김아리(2월) 김현경(3월) 문은희(3월) 박영희(4월) 박진선(3월) 배혜화(3월) 유선희(3월) 윤들(3월) 윤재오(21년11월-22년1월) 이인미(5월) 이지영(2-3월) 정선주(4월) 정은선(2월) 조윤미(3월) 지영림(1-12월) 최현숙(3-4월) 한문순(21년8-9월)

■ 어린이, 청소년회비 18명

권혁빈(3월) 김찬위(21년12월-22년4월) 김한울(3월) 손세훈·손세진·손여진(2월) 이동화·이동연·이동주(3월) 정아윤·정아인(3월) 조승훈·조승연(3월) 천하림(3월) 최예지·최윤지(2-3월) 현승주·현주은(3월)

■ **평생회비 12명**

권오성(13차) 권혁빈(13차) 김영남(37차) 김지혜(27차) 박선옥(80차) 박진선(69차) 박희영(68차) 배운정(9차) 윤들(15차) 이동연(18차) 이지영(74차) 최예지(60차)

■ **지정후원 19명**

- 알트루사 : 임형미 하순희
- 뜨개모임 : 권혁빈 문성근
- 난민과 함께살기 : 김광윤 김은정 문성근 박영희 이미경 정은선 한정희
- 계간지 : 김광윤 김인하 김지혜 박선옥 최만자 최현숙
- 핵없는세상 : 문성근
- 장애인집짓기 : 문성근

살림현황
(2022년 3월, 단위: 원)

3월	월회비	720,000
	이사회비	1,510,000
	평생회비	290,000
	후원금 및 기타 수입	6,721,894
	수입 계	9,241,894
	지출 계	5,126,000

◆ (사)한국알트루사
임시총회 및 제39회 창립기념 행사

-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사용)
-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오전 11시)

서른아홉 번째 생일을
다같이 보여서 축하합시다!!

*화상회의용 프로그램(zoom) 사용 관련 문의전화:
02-762-3977/8



책으로 만나는 살림생활 2022 봄 **니**
66호

같이 아프기로 해요

함께 아프며 발견하게 된 것들 | 김용은
동굴 앞에 서다 | 조윤미
나와 너의 아픔이 다리가 되어 | 이경희
아플 수 있어! 아픔을 표현할 수 있어! | 김지혜
함께하지 않았다면 | 정은선
아픈 엄마와 사는 아이 | 이주영
드러난 아픔과 숨겨진 아픔이 뒤섞인 기억을 꺼내며 | 이한나
아픔을 마주한다는 것 | 김희정
아픔을 같이 하는 방법 - '발화욕구' 받아주기 | 최현숙
그래도 감사 | 박정희
한 번 사는 인생 | 한제선

* 교보문고, 알트루사(02-762-3977)에서 판매 중

2022년 5월 알트루사 일정표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중단하고, 화상회의, 카페와 SNS로 소통하고 있다.
사무실로 모임 참여 신청을 하면 회의 시작 전에 화상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자원활동가회의 (오후 1:30-3:00)	4 정신건강 상담공부 (오전 10:30-12:30)	5 어린이날	6 어머니연구모임 (오전 10:30-오후 1:00)	7 청소년 재미있는학교 (오전 10:00-11:00) 해없는세상 (오전 11:00)
8	9 계간지 <니> 다시 읽기 모임 (오후 2:00-4:00)	10	11 여성의 눈으로 건강하게 성서읽기 (오전 10:30-12:30)	12 심리학교실 (오전 10:30-12:30)	13 어린이재학 아잘사 (오후 9:00) 청년 재미있는학교 (오후 10:00)	14 청소년 재미있는학교 (오전 10:00-11:00) 아잘사 (오후 12:00-2:00) 어린이 재미있는학교 (오후 5:00-6:00)
15	16 난민회의 (오전 10:30-12:30)	17	18 정신건강 상담공부 (오전 10:30-12:30)	19 심리학교실 (오전 10:30-12:30)	20	21 임시총회 및 알트루사 창립39주년 기념행사 (오전11시)
22	23	24	25 여성의 눈으로 건강하게 성서읽기 (오전 10:30-12:30)	26	27 청년 재미있는학교 (오후 10:00)	28 청소년 재미있는학교 (오전 10:00-11:00) 계간지 편집회의 (오전 10:30-11:30) 아잘사 (오후 12:00-2:00)
29	30 해없는세상을 위한 읽기모임 (오전 10:30-12:30)	31				

후 원 방 법

▶ 회원이 되시려면

【정 회 원】매월 일정액(어른 - 1만원 이상, 어린이 - 5천원) 납부

【평생회원】정회원이면서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100만원 납부

【후원회원】알트루사 사업과 운영을 후원

- ▶ 지정후원 : 계간 <니>, 여성상담소, 큰언니운동, 재미있는학교, 정신건강연구소, 도서출판 니, 난민모임 등을 지정하여 후원
- ▶ 일반후원 : 알트루사 운영을 위한 후원

【국제회원】국제알트루사에 연회비 납부(연회비 : US \$27.5(가입비/재가입비 US \$10))

▶ 후원금을 보내시려면

【월회비, 평생회비, 계간<니>, 여성상담소, 큰언니운동, 재미있는학교, 난민모임 등 후원(예금주 한국알트루사)】

- ▶ SC은행 282-10-010618
- ▶ 신한은행 100-020-578689
- ▶ 국민은행 368101-01-003343
- ▶ 우리은행 513-114021-13-101

※계간<니> 구독료 입금도 위 계좌로 보내고 연락주세요. (02-762-3977~8)

【정신건강연구소 후원】

- ▶ SC은행 129-20-289474

【도서출판 니 후원】

- ▶ 우리은행 1005-901-604429

알트루사의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마음을 같이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한국알트루사는
 여성들의 **정신건강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모든 활동은 모람들의 자원봉사입니다.

여성 정신건강

- ▶ 개인심리상담 : 문은희 여성상담소장의 1대 1 심리상담입니다. 내담자가 직접 전화 예약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정신건강 상담공부 : 첫째-셋째 주 수요일, 여성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며 함께 건강을 회복해가는 집단상담입니다.
- ▶ 정신건강연구소 : 자기 삶 속에서 다양각색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알트루사의 시각으로 연구합니다.
- ▶ 심리학교실 : 알트루사의 틀로 깊이 있게 자신을 분석하는 글을 써서 발표합니다. 서로가 거울이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심리학으로 알아갑니다.
- ▶ 책으로 만나는 심리상담 계간지 <니> : 알트루사가 말하는 정신건강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정신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글들을 엮어냅니다.
- ▶ 여성의 눈으로 건강하게 성서 읽기 : 당연하게만 여겨온 성서 구절을 여성의 눈으로 질문하여 읽고 토론합니다.

자기발견과 관계 맺기 운동

- ▶ 뜨개모임 : 매주 월요일, 뜨개질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줍니다. 자신을 위한 뜨개는 물론 후원 작품을 만듭니다.
- ▶ 노래모임 : 나와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합창을 통해 함께하는 재미를 경험합니다.
- ▶ 오케스트라 : 청소년과 어른들이 협력하여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 ▶ 화요모임 : 알트루사 모람들이 강사가 되어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남성도 참여 가능합니다.
- ▶ 큰언니운동 : 마음이 건강한 여성들끼리 또 청소년들과 큰언니와 동생 삼으며 심리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맺기 운동입니다. 서로 마음을 보살피는 관계를 퍼뜨려 갑니다.

재미있는학교

토요일에 운영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함께 어울려 놓고 공부도 신나게 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알트루사에서 정신건강에 눈을 뜬 모람들이 교사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잘살아보자는 모임'(아잘사)도 진행합니다.

도서출판 니

건강한 여성의 마음과 목소리를 담은 책을 만듭니다. <눈치 보는 한국여자>(문은희, 2009), <꽃 너희들 한 해 건너서 피면 안 되겠니?>(최동안, 2010), <한국여성의 심리구조>(문은희, 2011), <이해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최선옥, 2012), <나는 어떤 시민인가?>(핵 없는 세상 회원들, 2017)<3.1운동의 기억>(예람교회 교인들, 2020)을 펴냈습니다.

착한 사회를 위한 사회운동

- ▶ 핵없는 세상 : 세계의 피폭자들을 돕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다 함께 연대합니다.
- ▶ 난민과 함께 살기 : 마음 붙일 데 없는 난민에게 관심 두고 난민과 협력합니다.
- ▶ 장애인 집짓기 : 장애인의 거주방식은 장애인의 눈과 욕구에 근거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합니다.

발행인: 최현숙 편집인: 홍혜경 창간일: 1987년 8월
 주소 03029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2길 6-7 / 전화 02)762-3977-8 / FAX 02)762-3979
 홈페이지 : <http://www.altrusa.or.kr> / 카페 : <http://cafe.daum.net/altrusa>
 메일 : altrusa.adm@daum.net
 찾아오시는 길 :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